

“요셉처럼 꿈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리더를 세우다”

다음세대를 위한 『요셉 리더십 학교』 공식 출범

다음세대리더십연합(이하 다리연)과 GLIM 성경리더십연구원은 23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김포두란노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셉 리더십 학교』 교재 및 훈련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리연 대표회장 이상문 목사(김포두란노교회 담임)를 비롯해 공동대표 강신정 목사, 이선복 목사(인천송의교회), 최규명 목사(원주종정교회), 고문 홍영기 목사(GLIM 대표), 사무총장 이동훈 목사(용인 디글로벌처치 담임) 등이 참석했다. 또한 현장에는 교육·문화·멘토링 영역의 협력 사역자들도 함께해 다음세대 교육을 향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본문과 질문, 주제 강의, 작문 과제, 묵상과 기도, 소그룹 나눔, 안송 구절, 개인·공동체 선포 등으로 구성된 훈련 중심 커리큘럼을 따른다.

어린이용 교재는 말씀·이야기·활동·기도·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인적 구조로, 가정예배와 주일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회장 이상문 목사는 자신의 신앙 여정을 소개하며 다음세대 사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신학교에 진학했고, 결국 신앙의 근본적인 회심을 경험한 뒤 다음세대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와 자녀 간 신앙 대화의 회복

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다리연을 설립했고, 『요셉 리더십 학교』 교재는 청소년기 신앙 전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실천적 대안”이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음세대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문 홍영기 목사는 “요셉은 은혜만 받은 인물이 아니라, 언어를 배우고 환경을 익히며 국제 정세와 경제를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지도자였다”며 “요셉 리더십 학교는 신앙 훈련과 함께 실력을 갖춘 크리스천 인재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요셉 리더십 아카데미는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에 초점을 맞춘 훈련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총장 이동훈 목사는 “리더십은 방향

과 이끄는 힘”이라며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복음적 세계관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다리연의 핵심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부 협력 사역자들의 발연도 이어졌다. 유정현 대표(드림라이프클래스 대표, B.E.S.S 공동본부장)는 “요셉이 감옥에서도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실력 없는 인재만으로는 세상 아이들을 붙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 중심 신앙이 아니라 실패까지 품는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암근 대표(솔로몬에듀 대표)는 “대한민국 교육은 일시에 치우쳐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배워본 적이 없다”며 “요셉 리더십 학교는 꿈과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실제적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리연은 『요셉 리더십 학교』를 단순한 교재가 아니라, 신앙·인격·실력·사명을 통합한 다음세대 리더십 훈련 플랫폼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는 꿈을 품고, 청소년은 인격과 실력을 세우며, 청년과 평신도 리더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요셉형 리더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요셉 리더십 학교』는 청소년·제직용과 어린이용 교재로 구성되었으며, 교회학교, 청년부, 제자훈련, 제지훈련, 가정예배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 문의는 글림출판사 GLIM PRESS를 통해 가능하다.

마인인터뷰- 장로회전국연합회 신임회장 이 천 장로

“기도보다 앞서서 일은 없습니다”

균형잡힌 장로회 운영... 지방회 장로회와의 소통 중요



“교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장로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열린 장로회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천 장로(신수동·사직)는 “제58회기 동안 불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어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면서 “쫓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 말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도를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도보다 앞서서 일은 없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장로회가 되기 위해 기도회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보기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교단과 지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이 장로는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장로회 운영도 약속했다. 그는 총회 부총회장을 역임한 경험을 통하여 “교단 내에 갈등이 있고, 장로회 내에서도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전국에 계신 장로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장로는 임원 및 지방회 장로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실무 임원들이 지방회 지역 장로회를 찾아가고, 긴밀한 소통과 교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원칙을 세워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들과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로는 장로회 회원들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서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는 당장 각 지방회 장로회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간담회와 친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호 이해 관계 속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장로는 또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신앙부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장로회 하계 수련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존의 수련회를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장로회 회원들의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온화한 성품을 가진 이천 장로는 청년사역위원회에서 성령 발전에 큰 힘을 쏟으며 부흥의 산과 역할을 했으며 총회 부총회장을 지내며 교단을 위해 헌신해 왔다.

신월동교회, 농어촌교회 찾아 ‘어르신 성경학교 사역’ 펼쳐

노동 협력사업, 농어촌부 시범사역으로 향후 교단 내 확대



서울서지방회 신월동교회(고신원 목사)는 교회 내 늘푸른 실버대학 스랩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1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충남 서산 햇빛교회에서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학교 사역을 펼쳤다.

교회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어촌 교회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햇빛교회는 교회 어르신들뿐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어르신 성경학교를 열었고, 20여년 간 실버대학과 어르신복지관을 운영해 온 신월동교회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지며 의미 있는 협력 사역이 이뤄졌다.

신월동교회는 실버대학 스랩과 봉사자들이 팀을 이루어 사전 기도회와 감동회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햇빛교회에서도 실버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성도

들이 함께 참여해 사역의 깊이를 더했다.

프로그램은 이틀간 다채롭게 진행됐다. 목요일, 금요일 오전 첫 시간에는 신월동교회 원로목사인 고용복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며 부흥회에 버금가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 첫째 날 오전에는 찬양에 집중하는 집중 찬양이 진행돼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오후에는 바람벽 만들기 체험이 이어져 현장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미니 올림픽을 통해 활기찬 시간이 마련됐으며, 오후에는 네트공에 시간으로 카드지갑을 제작했다. 젊은 시절 바느질 경험을 살린 어르신들의 솜씨가 돋보이며 즐거움과 성취감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레코리에이션 강사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며 프로그램 전반의 완성도 또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식사 역시 큰 호평을 받았다. 점심 식사

는 하루는 햇빛교회가, 하루는 신월동교회가 각각 섬기며 정성껏 준비해 어르신들의 극찬이 이어졌다.

농한기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기 쉬운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이번 성경학교는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 첫날에는 25명, 둘째 날에는 3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신체적·정서적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신앙적으로도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며 자연스러운 전도의 기회로도 이어졌다.

사역 현장을 방문한 인근 교회의 원로목사와 담임목사는 “농어촌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실버사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어르신 성경학교는 교단 농어촌부에서 실시한 시범사역으로, 향후 교단 농어촌부의 집중사역으로 프로그램화하여 도시교회와 농어촌 지역 교회의 연합사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에 더욱 의미가 컸다.

2026년 전국 정기지방회 일정

날짜	지방회	장소	날짜	지방회	장소
2월 2일(월)	경북	군위무성교회	2월 24일(화)	강원	주말섬교회
2월 3일(화)	제주전도	신양교회		서울동	거룩한씨성동교회
	호남전도	함께하는교회		서울중부	운양교회
2월 9일(월)	강서	안디옥교회		안산	안산실로암교회
	경기동	삼성교회	전북동	참좋은교회	
	경남	사뵈기에심은교회	천안아산	시온교회	
	서산	동암교회	경기	수원중앙교회	
	서울북	초정교회	부천	목양교회	
	인양중앙	효민교회	충남	공주제일교회	
2월 10일(화)	인천	살을변화시키는교회	2월 28일(토)	서울	창신교회
2월 19일(목)	서울서	강서교회	3월 17일(화)	서울남	이웃교회
2월 22일(일)	경기남	예수광교회	3월 9(월)~10일(화)	광주 / 서남	여수 오션힐호텔(예정)
	시흥	하늘빛교회			
2월 23일(월)	고양	아름다운포도원교회	2월 23일(월)	충서	미당교회
	대전	대전소망교회			
	서울강남	순수교회			
	시흥중앙전도	동은교회			
	안양	비산동교회			
	인천서	하늘소망교회			
	전북	반석성결교회			
	충서	미당교회			

구독후원금 납부운동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살림!

그동안 예성의 교단지인 성결신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독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금과 광고로 협력해 주신 전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안드립니다.

저희 성결신문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국교회 교직원들의 애정이 담긴 후원을 힘입어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 저희 신문사도 교단 산하의 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작은 부분이나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저희가 교단산하 교회와 장로님들께 발송해 드린 성결신문에 대하여 문서선교적인 차원에서 2025년도 구독후원금 44,000원을 부탁드리오니 발송된 지로용지나 국민은행 533301-01-168714(예금주: (주)성결신문사)로 송금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성성결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알찬 신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3일

성결신문사